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평양 도착한 '주몽' 팀 "눈물 나네요"

송일국·한혜진 등 17일 고구려 옛 땅 밟아... 동명왕릉, 고분 등 둘러봐

최근 종영한 MBC 인기 드라마 '주몽'의 주요 배우와 제작진이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 평양을 방문했다. 타이틀블 송일국을 비롯해 한혜진, 전광렬, 오연수, 이계인 등 '주몽'의 연기자들과 정은원 MBC 드라마국장, 이주환 PD 등 제작진은 17일 오후 5시55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고구려의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북한 땅에 발을 디뎠다.



17일 오후 평양을 방문한 MBC 인기드라마 '주몽'의 주요 배우들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일국·한혜진·이계인·오연수·전광렬.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에 당도한 이들은 고려항공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부터 연방 창밖을 내다보며 기대감을 나타내다가 비행기에서 내려 평양 땅을 밟고 나서는 벅찬 감격을 숨기지 않았다. 소서노를 연기했던 한혜진은 "북한 민족화해협력의 관계자 분들이 공항에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같은 민족끼리 그동안 왜 못 만났을 게 싫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며 평양을 처음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공항으로 '주몽' 팀을 마중 나온 박현화 한화철 참사는 "고구려의 시조 왕인 주몽을 드라마로 창작하신 분들이 평양에 오셔서 감회가 새롭겠다"고 말을 건넨 뒤 "눈물이 난다"는 '주몽' 팀의 방북 소감에 "그게 참 민족이라는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를 둘러보면서 양각도 국제호텔에 도착한 '주몽' 팀은 박경철 한화철 부회장이 주최한 만찬을 함께 하며 평양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박 부회장은 "이번 평양 방문이 고구려의 기상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술잔을 한 번에 들이켜지는 뜻으로 "축합니다"라고 건배 의사를 밝혔다.

주몽 역의 송일국도 "차를 타고 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중국을 거쳐 오다보니 꼬박 하루가 걸렸다"며 "주몽"을 촬영하면서 옛 고구려인의 진취적 기상을 배웠고 고구려 역사에 대해 강한 민족의식을 느낀 것도 새로운 보람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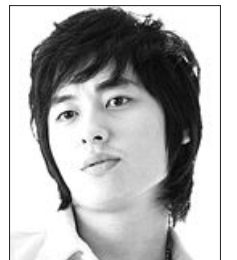
'주몽' 팀은 이날 오전 11시15분 인천공항을 떠나 4박5일의 일정으로 드라마 '주몽'의 배경이 됐던 고구려 역사를 되짚어보는 평양 방문했으며 동명왕릉과 고구려 고분, 역사박물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가수 이지훈 도쿄서 단독 콘서트

만능탤런트 이지훈이 이달 25일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의 단독 콘서트 'LEE JEE HOON 2007 THE LIVE ACT. ZERO IN TOKYO'는 도쿄의 도쿄FM홀에서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 열린다.

이. 이지훈 씨의 소설 '김치만두 다섯 개'를 원작으로 무늬져 가는 종가집 화안의 여주인과 머슴 출신 재벌 3세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이번 작품에서 이지훈은 뻔뻔한 재벌3세 황동규 역을 맡아 이다해와 공연한다.



이. 이지훈 씨의 소설 '김치만두 다섯 개'를 원작으로 무늬져 가는 종가집 화안의 여주인과 머슴 출신 재벌 3세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이번 작품에서 이지훈은 뻔뻔한 재벌3세 황동규 역을 맡아 이다해와 공연한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product quality and price.

케이블·위성TV 19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SBS, KMTV, and others, with columns for program names and times.